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창립주일:**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12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설교: 고만호 목사, 총회 선교부장, 여수 은파교회 시무)
- ② **음악축제:** 창립감사 음악축제를 오는 7월 20일(수)에 갖습니다. 개인, 기관, 참여 신청 바랍니다.
- ③ **수요예배:** 이번 주 수요예배는 뉴질랜드 성서공회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 김용환 목사)
- ④ **갈보리 장터:** 이번 주 성전 건축헌금을 위한 갈보리 장터 코너는 골프 가방입니다. 보시고 필요하신 분 구입 바랍니다. (담당: 김광영 집사)
- ⑤ **모임:** 부부선교회, 1 남선교회, 4 여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 ⑥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⑦ **정정:** 지난 주 등록된 전인우 집사 가정 전화번호를 529-2237로 바로 잡습니다.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지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지역)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7월 교회일지

창립기념 감사주일 :

7월 10일 (주일)

성경캠프 (아동부):

7월 15일-16일 (금 토)

창립감사 음악축제:

7월 20일(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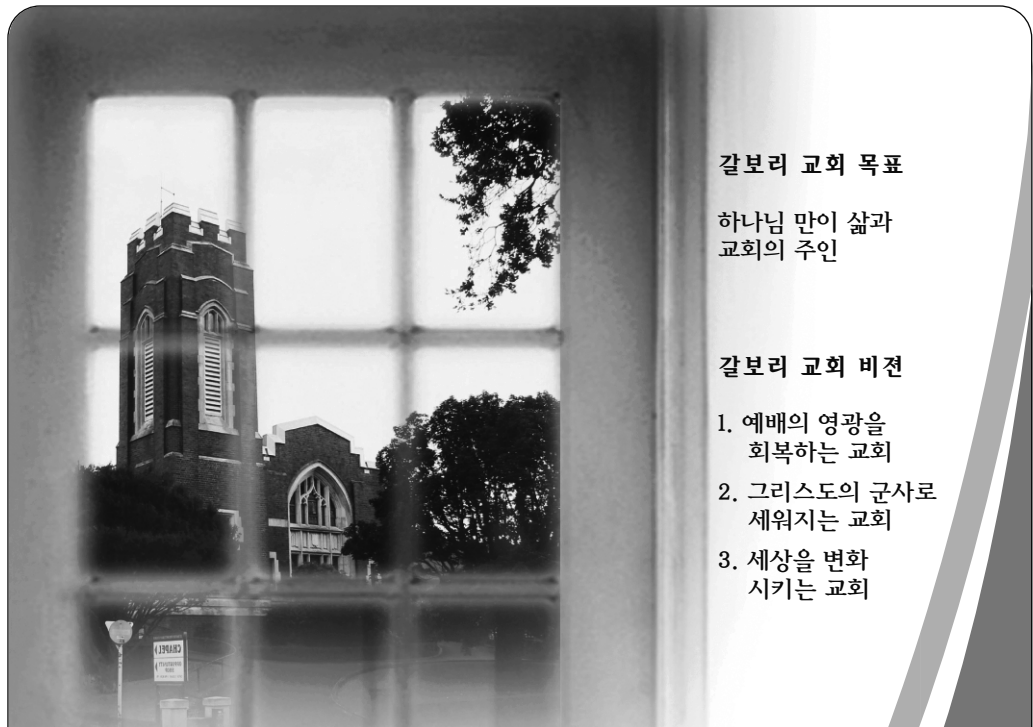
7월 기도자 및 안내담당

| | 1부기도 | 2부기도 | 수요기도 | 예배 안내 | 새신자 안내 | 주차안내 | 주방봉사 |
|-----|------|------|------|---------|-------------|------|-------------|
| 3일 | 박덕철 | 진혜령 | 정진택 | 고성일/김봉희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 10일 | 박병민 | 방명아 | 김휘열 | 고성일/김봉희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 17일 | 이동술 | 원미경 | 남영수 | 고성일/김봉희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 24일 | 최득수 | 최장한 | 민광호 | 고성일/김봉희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 31일 | 정덕수 | 김성희 | 민선희 | 고성일/김봉희 | 노은숙/심경순/김광자 | 양봉욱 | 정희자/한상순/김재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 환자를 위해** 1. 혈액암으로 투병중인 기성 형제 와 여러 질병으로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극복하도록
- 교회를 위해** 1. 창립 1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성장 성숙하는 교회가 되도록
2. 성전 건물 매입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기도에 힘을 쏟도록
- 세상을 위해** 1. 교회가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잘 감당하므로 불신자들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2. 김유정 선교사를 비롯한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지지치 않고 영육으로 강건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 | | | |
|----------------|-------------|-----------------|-----------------|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
| | 부목사 : 심창진 | 정관영, 현석호 | 정덕수, 최재학 |
| | 교육전도사 : 진혜령 | 지휘 : 신경화 | 유승재, 박계용 |
| | | 만주 : 송민영, 유지선 | |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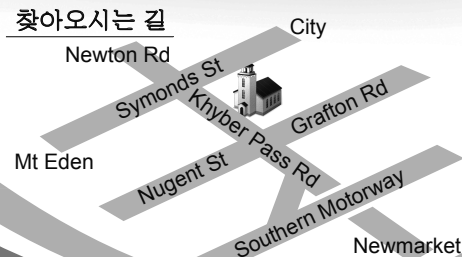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 | | | | | | | |
|--------|-----|--------|--------|------|----|--------|--------|
| 주일1부예배 | 주일 | PM1:00 | 본당 | 유아부 | 주일 | PM1:00 | 유아실 |
| 주일2부예배 | 주일 | PM3:00 | 본당 | 아동부 | 주일 | PM1:00 | Chapel |
| 수요예배 | 수요일 | PM7:30 | 본당 | 중고등부 | 주일 | PM1:00 | 별관 |
| 새벽기도 | 금요일 | AM5:50 | Chapel | | | | |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7월 3일

주보 13권 27호

www.calvary.org.nz

주일1부예배

| | | |
|--------|---------------|-------|
| 오후 1시 | 인도: 이태한목사 | |
| 전주 | 반주자 | |
| 예배로 부름 | 신명기 63:2-4 | 인도자 |
| 개회송 | 찬양대 | |
| 참회의 기도 | 다함께 | |
| *찬송 | 36장 | 다함께 |
| *성서교독 | 39(21). 시편 95 | 다함께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함께 |
| 찬송 | 260장 (194장) | 다함께 |
| 대표기도 | 박덕철집사 | |
| 성경봉독 | 사도행전 11:19-26 | 인도자 |
| 찬양대찬양 | 나무십자가찬양대 | |
| 설교 | 아름다운 교회 | 이태한목사 |
| 찬송 | 210장 (245장) | 다함께 |
| 헌금기도 | 인도자 | |
| 교회소식 | 인도자 | |
| *응답송 | 주기도문 송 | 다함께 |
| *축도 | 이태한목사 |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박병민집사 | 7월 17일: 이동술집사

건축헌금 | 지난주 헌금: \$0.00 | 총계: \$597,267.19

주일2부예배

| | | |
|-------|-------------|-------|
| 오후 3시 | 다함께 | |
| 찬양 | 청년찬양단 | 다함께 |
| 기도 | 진혜령전도사 | |
| 성경봉독 | 열왕기하 2:6-14 | 인도자 |
| 설교 | 열정의 전수 | 심창진목사 |
| 찬송 | 모든 민족에게 | 다함께 |
| 헌금기도 | 인도자 | |
| 교회소식 | 인도자 | |
| 축도 | 심창진목사 | |

다음주 기도: 방명아집사

수요일예배

| | | |
|-----------|---------------|-------|
| 오후 7시 30분 | 다함께 | |
| 찬양 | 수요찬양단 | 다함께 |
| 기도 | 정진택집사 | |
| 성경봉독 | 디모데후서 3:15-17 | 인도자 |
| 설교 | 성경은 어떤 책인가? | 김용환목사 |
| 합심기도 | 이태한목사 | |
| 광고 | 인도자 | |
| 찬송 | 199장 (234장) | 다함께 |
| 주기도 | 다함께 | |

수요일예배 기도: 한상순집사
다음 수요일기도: 김휘열집사

갈보리 칼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집에서 교회 사무실에 도착을 하면 지갑, 핸드폰 등을 옷 주머니에서 꺼내어 책상서랍에 넣어 놓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번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본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에 메세지가 도착했다는 알람 소리가 났습니다. 아차 핸드폰을 빼놓는다는 것이 그만...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어 기도 가 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스팸메일이 많은 때에 쓸데없는 광고문구가 도착했다면 무시하겠지만 그 시간에 메세지를 보내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문자만 보낼 수 있는 폰이기 때문에 항상 급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메세지를 본다면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는것 같고, 보지 않으려니 분명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도 아버지라고 문자를 보냈을 것인데 외면할 수도 없고 안들었으면 그만일텐데, 어떻게 하나, 그때부터 기도인지 아닌지 횡설수설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 묻고 싶으시죠?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경스러운 죄(?)를 범하면서 메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우선했다고 책망을 하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핸드폰은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가 없으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배터리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핸드폰은 통화가 안 되는 때와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뉴질랜드는

그런 지역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통화권 이탈이라는 것이 없고 기도 하면 하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활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됨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의 기도는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는 바쁘시지 않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바쁘십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만큼은 이기지 못하십니다.

찰스 존스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5년 후의 내 모습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 두 가지는 지금 읽고 있는 책과 요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 하고 싶습니다.

요즘 내 기도 생활이 어떠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많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는 글로 된 성경, 즉 ‘말씀’ 이고, 둘째는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분주하기 그지 없는 이민자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가 이것이 우리 이민자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것입니다.

- 이태한 목사